

이색적인 디저트와 여유로움까지 갖춘 '유루이' 카페를 소개합니다.

스토리 내가 생각하는 좋은 카페의 기준은?
스토리발굴 우아미



유루이 카페는 선호하는 내 나름의 조건을 다 갖추어 만족할 수 있다. 카페 규모가 크지 않은 한편 건물 앞과 뒤편에는 주차장이 있어 편리하다. 정성을 다해 가꾼 관상용 식물들을 갖추어 놓아 실내에 들어서자마자 아늑하고 편안한 기분이 든다.

영주 택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 높은 건물이 서는가 하면 고층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기도 한다. 새 상가가 생기고 이른바 동네 의원도 어렵잖게 눈에 띄인다. 그 가운데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이 카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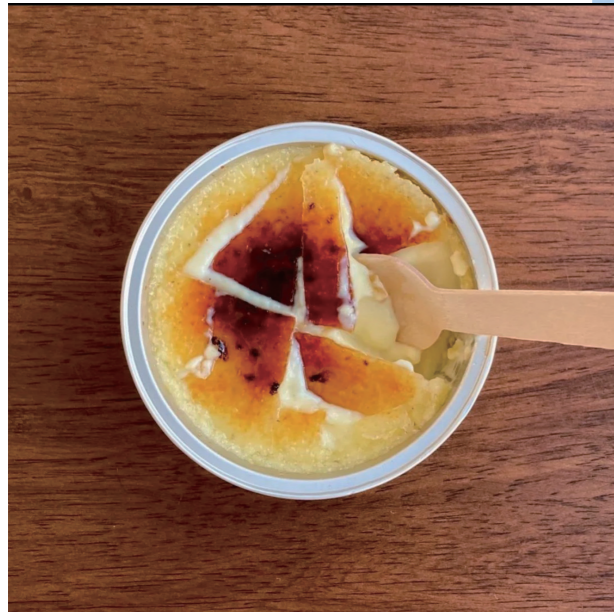
카페가 생기면 즐겨 찾아가곤 하는데 대부분의 카페는 한번 방문하는 데에 그치고 만다.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카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 나름대로의 카페 기준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봤다.

우선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주차가 편리해야 한다. 그리고 카페 공간이 크지 않은 한편, 손님들이 그리 많지 않아야 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커피와 디저트 맛이 좋아야 한다. 결제 시 적립금 제도가 있으면 더욱 좋다.

영주시 대학로 298번길 32에 '유루이' 카페가 있다. 카페 이름 '유루이' 는 일본어로서 '느긋하다' 라는 뜻이다. 카페에서 몸과 마음도 차분하게 내려놓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쉬고 가라는 뜻에서 지은 상호라고 한다. '느긋하다' 의 의미를 지닌 '유루이' 라는 이름 탓인지 유루이 카페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정말로 멈춘 듯 느리게, 서서히 흘러가는 듯한 푸근한 느낌이 든다.





또, 주문할 때 결제 금액의 5%를 적립해 주는데 적립금으로써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 때문에 유루이 카페를 한층 더 자주 찾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딱 맞은 유루이 카페가 우리 곁에 있어 소소한 기쁨을 누리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카페에 앉아 있어 보면, 사장님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바닥 청소를 하고, 테이블을 닦는 등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카페를 진심으로 아끼고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은연중에 알게 된다.

커피 한 잔의 여유와, 기분 좋은 분위기가... 갈 때마다 심신이 느긋하게 풀어지는 듯 여유를 누리면서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온다. 빠르게, 더욱 빨라야 성이 차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색적인 디저트를 음미하고 여유로움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유루이카페를 방문하시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심정이다.



손님들이 '부부냐?' 고 물을 정도로 남매가 사이좋게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이다.

카페를 운영하는 남매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커피와 빵을 만든 경험이 있어 커피와 디저트는 유별나게 맛있다. 더구나 버터 바, 크림뷔셀레, 브라우니, 스모어 쿠키, 마들렌, 스콘 등 디저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특히 '크림뷔셀레'는 프랑스 전통 디저트인데 멀리 유럽에서 맛볼 수 있는 디저트를 우리 곁 택지에 있는 유루이 카페에서 즐길 수 있다.

커피 아메리카노는 가격이 저렴하고, 시그니처인 피넛크림 아인슈페너는 맛이 좋아 입에 착 붙는 느낌이 든다.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유대신 오트밀크를 넣어 만든 라떼는 한 모금 마시자마자 고소한 맛에 반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내 인생의 커피가 되고 말았다.

